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백충기 수석연구위원(cgbaek@bnkfg.com)
김민준 책임연구위원(kmj9612@bnkfg.com)

2018년 동남권 경제는 전국(2.9%)보다 낮은 1.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은 회복이 예상되나 제조업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2012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1%대 저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제조업의 경우 기계, 석유정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조선은 부진이 지속되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은 성장세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및 중국과의 사드관련 갈등 완화 등에 힘입어 도소매, 숙박·음식점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시현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소비심리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건설업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동산 시장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 금년보다 성장세 확대

2018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7%로 금년(3.6%)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선진국이 양호한 성장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신흥국은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 및 유로의 경우 고용호조에 따른 소비증가 및 투자확대 등으로 견조한 성장이 예상된다. 일본은 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률은 하락하겠으나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은 구조개혁 지속 및 부동산경기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6%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브라질, 러시아는 대외여건 개선에 따른 자원 수출 증가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8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 국가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세계전체 | 3.6 | 3.4 | 3.2 | 3.6 | 3.7 |
| 선진국 | 2.0 | 2.2 | 1.7 | 2.2 | 2.0 |
| (미국) | 2.6 | 2.9 | 1.5 | 2.1 | 2.3 |
| (유로) | 1.3 | 2.0 | 1.8 | 2.1 | 1.9 |
| (일본) | 0.3 | 1.1 | 1.0 | 1.5 | 0.7 |
| 신흥국 | 4.7 | 4.3 | 4.3 | 4.6 | 4.9 |
| (중국) | 7.3 | 6.9 | 6.7 | 6.8 | 6.5 |
| (인도) | 7.5 | 8.0 | 7.1 | 6.7 | 7.4 |
| (러시아) | 0.7 | -2.8 | -0.2 | 1.8 | 1.6 |
| (브라질) | 0.5 | -3.8 | -3.6 | 0.7 | 1.5 |

자료 : IMF(2017.10)

국내경제도 개선흐름 지속될 전망

2018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금년(3.0%)보다 낮은 2.9%로 전망된다. 투자부문이 크게 둔화되면서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소비부문이 개선되면서 긍정적 흐름을 시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간소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¹⁾, 정규직 전환 등 정부의 소득주도형 정책추진에 따른 가계소득 증대 및 소비심리 개선 효과로 확대될 전망이다. 투자는 IT부문을 제외한 철강, 조선 등 제조업 부진으로 설비투자가 둔화되고 건설투자 역시 SOC예산 감소 및 주택시장 위축 등으로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대외수요 확대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올해와 같은 단가인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전망기관 | 2017 | 2018 |
|-------------------|------|------|
| 한국은행(17.10) | 3.0 | 2.9 |
| 국회예산정책처(17.9) | 2.9 | 2.8 |
| IMF(17.10) | 3.0 | 3.0 |
| 10대 해외투자은행(17.10) | 3.0 | 2.8 |

자료 : 각 기관, Bloomberg

부문별 성장률 전망



주 : 수출은 실질GDP중 재화수출 기준
자료 : 한국은행

1)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시급)으로 결정했으며 2020년 1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을 발표

동남권 경제 성장률은 1.4%로 전국 수준 하회 예상

2018년 동남권 경제는 1.4%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12년 이후 7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1%대의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의 경우 기계 및 석유정제는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조선은 부진이 지속되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은 성장세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및 중국과의 사드관련 갈등 완화 등에 힘입어 도소매, 숙박·음식점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의 경우 금년중 동남권지역 건축물 착공면적 감소²⁾ 및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을 감안할 때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18년 동남권 경제성장률 전망¹⁾²⁾

(%)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동남권 | 1.7 | 2.0 ³⁾ | 1.2 | 1.2 | 1.7 | 1.4 |
| 전 국 | 2.9 | 3.3 | 2.6 | 2.8 | 3.0 | 2.9 |

주 : 1) 동남권 지역은 BNK금융경영연구소 추정치(2016년, 2017년) 및 전망치(2018년)

2) 전국은 한국은행 추정치(2017년) 및 전망치(2018년)

3) 소수 둘째자리까지 확인하면 성장률은 1.98%로 1%대 성장

자료 : 통계청

2) 2017.1~9월중 동남권의 건축물 착공면적은 전년동기대비 19% 감소하였으며 주택건설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설 경기는 올해보다 위축될 것으로 예상

동남권 주력산업 동향 및 전망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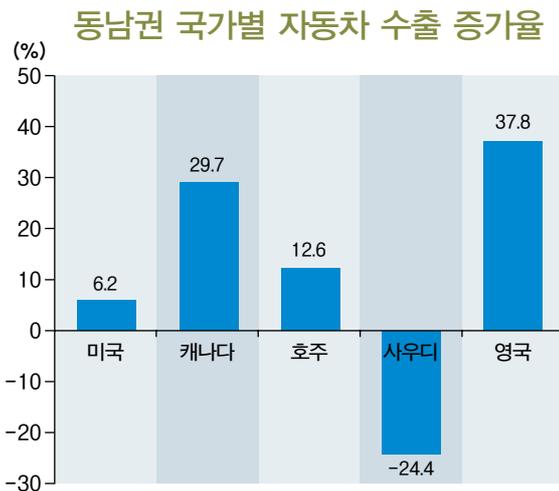
동남권 자동차산업은 신차판매 호조 및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금년 1~9월중 전년 동기대비 4.2%의 생산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하지만 수출은 사드이슈에 따른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감소, 경쟁심화에 따른 미국시장 점유율 하락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내년에도 자동차산업은 미국시장의 수요둔화, 중국정부의 세제지원 축소 등 비우호적인 대외여건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미국의 자동차수요가 0.6%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시장의 성장세도 구매세 인하 정책 종료, 환경규제를 위한 구매제한 정책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국내 내수시장도 2%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신차출시 효과, 친환경차 판매호조 등이 기대되지만 수입차로의 소비자 이탈 지속³⁾ 등은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개월 이동평균)
자료 : 통계청



주 : 2017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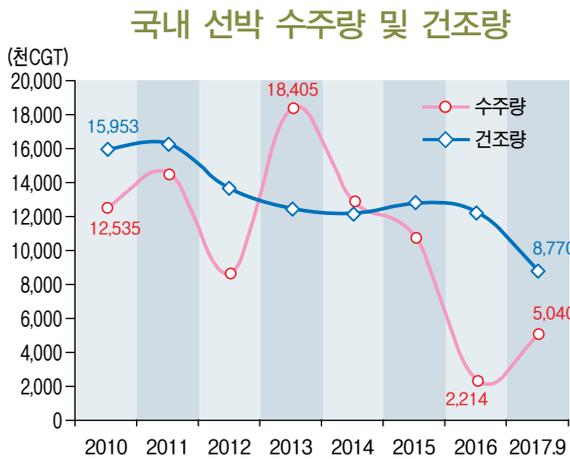
3) 국내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2010년 6.9%에서 2017년 15.2%로 크게 높아졌으며 내년에도 폭스바겐 판매재개 등으로 점유율은 상승할 전망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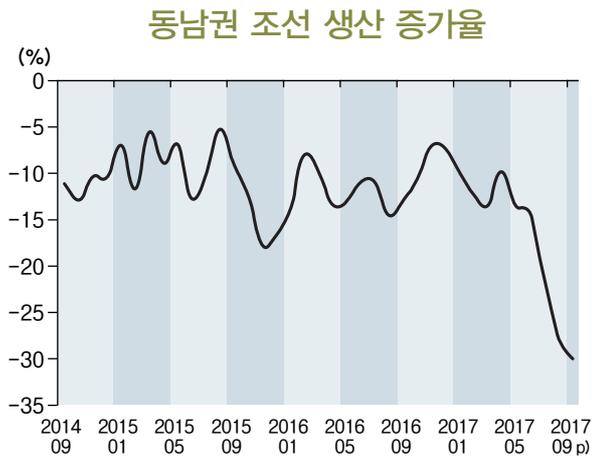
동남권 조선산업은 2014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생산 감소국면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7. 9월 현재 생산수준은 최대치(2013.1월, 125.7p)를 기록했던 때와 비교하면 4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주규모와 수주잔량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생산부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수주와 생산간 시차가 1~2년 존재하는 것을 감안할 때 2016~17년의 극심한 수주부진은 내년도 일감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2017.10월말 현재 국내 수주잔량은 1,665만CGT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이며 약 1.3년치의 일감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년부터는 선박수주가 본격적인 회복흐름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산화물(SOx)⁵⁾ 및 질소산화물(NOx)⁶⁾ 배출가스 규제강화,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의무화 등 해양 환경규제에 따른 선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료 : Clarksons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3개월 이동평균)
자료 : 통계청

4) 동남권 조선업 생산은 2014년 -14.1%, 2015년 -11.1%, 2016년 -11.0%, 2017년(1~9월 기준)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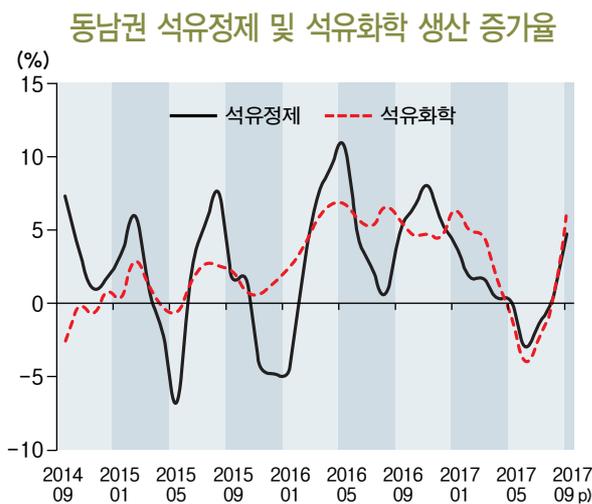
5) 선박연료의 황함유량을 현재 3.5%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0.5%이하로 제한

6) 2016년부터 북미통항 신조선박에 NOx TierⅢ를 적용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발틱해, 북해통항에도 적용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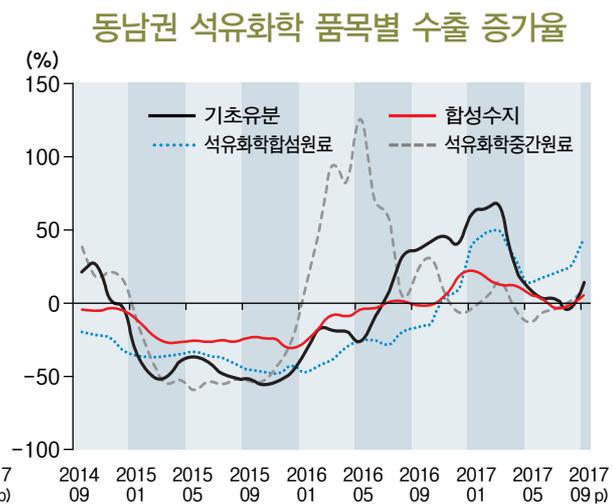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동남권 석유정제산업은 중국, 호주 등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2017.1~9월중 전년 동기대비 1.2%의 생산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2018년에도 공급수준이 수요에 못 미치면서 업황 성장세가 예상된다. EIA(미국에너지관리청)는 2018년 글로벌 수요증가분을 170만배럴/일로 상향조정하며 공급증가분(64만배럴/일)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금년중 對중국 기초유분 수출증가 및 가격경쟁력 확보 등으로 상승세를 시현하였다. 하지만 내년에는 중국의 자급률⁷⁾ 제고, 북미지역 신규설비⁸⁾ 가동으로 공급규모가 확대되면서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국제유가(WTI 기준)⁹⁾도 하반기 이후의 상승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원유를 원료로 에틸렌을 생산(NCC방식)하는 국내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3개월 이동평균)
자료 : 통계청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3개월 이동평균)
2)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7)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3대 유도품의 자급률은 2016년 83.0%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8) 2017년 4분기부터 2018년까지 북미지역에서 연간 생산능력 10백만톤의 에틸렌 생산설비가 가동될 예정
9) 2017년 6월 평균 배럴당 45.2달러에서 11월 평균(1~22일 기준) 56.2달러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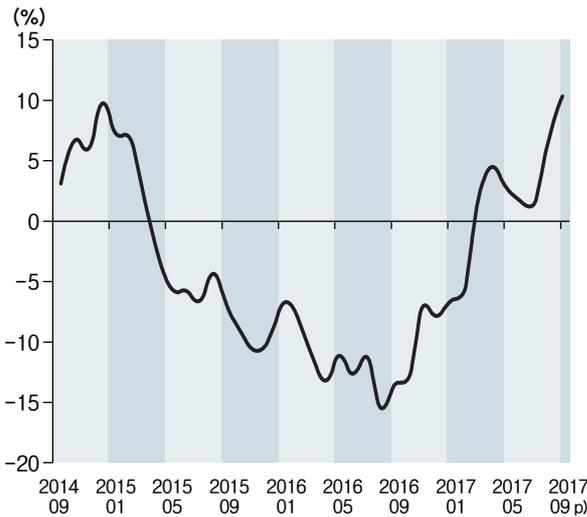
기 계

금년 동남권 기계산업 생산은 2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1~9월중 전년동기대비 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경기개선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인도 등의 인프라투자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한다.

내년에도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대외수요가 확대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008~11년중 판매된 굴삭기의 교체주기 도래로 인한 중국 수요증가¹⁰⁾ 및 동남아 등 신흥시장의 인프라투자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수시장은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전망산업 부진으로 인해 선박해양부품, 공작기계, 건설장비 등을 중심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기계산업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남권 기계 생산 증가율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3개월 이동평균)
자료 : 통계청

동남권 기계 품목별 수출 증가율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3개월 이동평균)
2)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10) 중국공정기계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신규 굴삭기 판매량은 1~9월중 전년동기대비 109.6% 늘어났으며 2018년에도 연간 13만대 수준의 안정적인 판매실적을 기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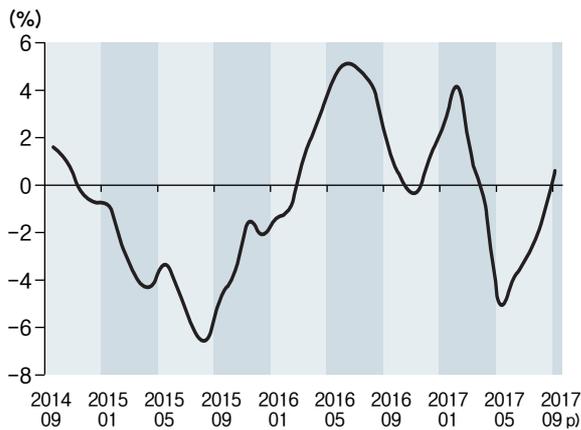
철강

금년 세계 철강산업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글로벌 과잉공급 현상이 일부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동남권의 경우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국내수요가 위축(-1.5%)되면서 철강산업 생산은 2017.1~9월중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동남권 철강산업은 대외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미약한 성장에 머물 전망이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내년도 전세계 철강수요가 1.6% 늘어나는데 반해 국내의 경우 건설경기 둔화, 자동차생산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철광석의 단가인상효과¹¹⁾가 약화되어 수출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인프라투자 지속, 유가상승에 따른 산유국의 철강수요 증가 등은 수출 둔화폭을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 철강 생산 증가율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3개월 이동평균)
자료 : 통계청

세계 철강수요 전망

| 구분 | 세계 (%) | | | |
|-------|--------|--------------------|----------------------|--------------------------|
| | 세계 | 중국 | 신흥 시장국 ¹⁾ | 아시아 ²⁾ ·오세아니아 |
| 2015년 | -3.0 | -5.4 | 1.9 | -3.3 |
| 2016년 | 1.0 | 1.3 | 1.5 | 2.2 |
| 2017년 | 7.0 | 12.4 ³⁾ | 2.8 | 9.3 |
| 2018년 | 1.6 | 0.0 | 4.9 | 1.1 |

주 : 1) 2) 중국 제외
3) 통계집계가 되지 않았던 미허가 유도로 설비 폐쇄효과가 반영(미반영시 3%)
자료 : 세계철강협회(WSA, 2017.10월)

11) 2018년 철광석 가격은 글로벌 철광석 생산량(21억 3천200만톤)이 수요(20억 8천200만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

[참고] 동남권 부동산시장 전망

▣ 2018년 동남권 부동산시장은 하향 안정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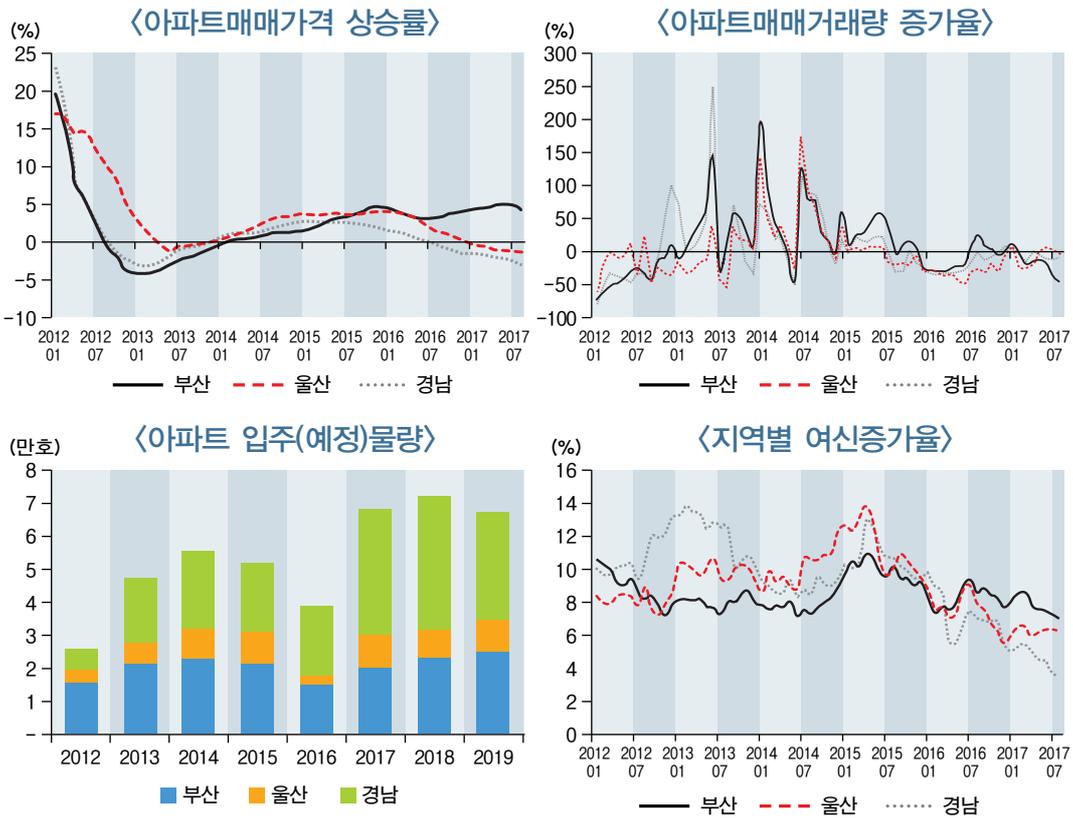
- (부산) 투자수요 감소로 거래는 위축되겠으나 안정적 실수요를 기반으로 가격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
- (울산, 경남) 수요 감소 및 공급물량 증가로 가격 하락세 전망

〈 2018년 부동산시장 여건 평가 〉

| 구 분 | 가 격 | 거 래 량 |
|-----|-----|-------|
| 부 산 | ☁ | ☔ |
| 울 산 | ☔ | ☔ |
| 경 남 | ☔ | ☔ |

주 : 최근 3년대비 각 항목별 수준을 평가, ☁ (보합), ☔ (하락)을 의미
 자료 : 통계청

▣ 부동산시장 주요지표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3개월 이동평균)
 자료 : 통계청

[참고문헌]

건설산업연구원, “2018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2017.11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17.9
 미국에너지관리청, www.eia.gov
 석유화학협회, www.kpia.or.kr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7년 조선해운시황,” 2017.10
 세계철강협회, www.worldsteel.org
 통계청, www.kosis.kr
 한국금융연구원, “2018년 경제전망,” 2017.11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7.11
 _____, “경제전망보고서,” 2017.10
 Danish ship finance, “Shipping Market Review,” 2017.5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7.10
 LMC Automotive, “US Monthly Retail Sales,” 2017.10
 Moody's, www.moody.com
 OECD, “Economic Outlook and interim Economic Outlook,” 2017.9

BNK경제인사이드 발간목록

2014

| | |
|----|-------------------------------|
| 05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
| 06 |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
| 07 |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
| 08 |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
| 09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
| 10 |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 11 |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
| 12 |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

2015

| | |
|----|-------------------------|
| 01 |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
| 02 |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
| 03 |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
| 04 |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
| 05 |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
| 06 |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
| 07 | 최근 기업금융 현황 |
| 08 |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
| 09 |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
| 10 |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
| 11 |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
| 12 | 경쟁력 우수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

2016

| | |
|----|------------------------------------|
| 01 |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
| 02 |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
| 03 |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
| 04 |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
| 05 |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
| 06 |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
| 07 |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
| 08 |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
| 09 |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
| 10 |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
| 11 |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
| 12 |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

2017

| | |
|----|----------------------------|
| 01 |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
| 02 |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
| 03 |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
| 04 |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
| 05 |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
| 06 |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
| 07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
| 08 |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
| 09 |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
| 10 |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
| 11 |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

언제나 BNK 어디서나 BNK

내 결혼을 BNK가 함께 합니다
 취업을 하고 첫 급여통장을 만들었을 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내 집과 자동차를 계약하고
 해외여행 가기전 환전을 할 때도, 부모님께 용돈을 챙겨드릴 때도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줄 때도
 언제부턴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BNK-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입니다.



BNK 금융그룹

BNK BNK금융지주

제2017-11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정민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17년 11월 30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